

“해양치유산업 체계적 육성…일자리 늘리고 소득 증대”



재선 성공 신우철 완도군수 민선 7기 구상

이순신-진린 장군 선양사업·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활전복 위주 유통 한계…다양한 제품 개발·해외시장 공략 박차
섬지역 어린이집 지원·다문화가정 무료 검진 등 맞춤형 복지

“누구나 찾고 싶은 완도, 모두가 잘사는 완도 만들겠습니다.”

민선 6기에 이어 압도적인 지지율로 재선에 성공한 신우철 완도군수는 “지난 4년도 중요했지만 앞으로 나아갈 4년이 완도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시기”라며 “무엇보다 소통과 화합을 군정 최우선 기조로 하고 주민과 협력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군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을 펴겠다”고 강조했다.

신 군수는 민선 7기 군정 목표는 ‘모두가 잘사는 희망찬 미래 완도’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과제로 ▲미래성장 해양치유 ▲지속가능 지역경제 ▲사람우선 포용복지 ▲생태중심 문화관광 ▲가치보전 청정환경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신 군수는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직면해 있는 현안도 있지만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공약이 52개로 산적해 있다고 밝혔다.

완도군은 전복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과 완도 수산물 소비자 직거래 유통센터 운영, 다도해 일출공원 확대 조성, 이순신과 진린 장군 선양 사업,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및 생물권 보전지역 등재를 계획하고 있다.

또 완도의 미래 먹거리인 ‘해양치유산업’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해양치유산업은 청정한 해양 환경과 풍부한 해양 자원이 있어야 가능한데, 완도는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 최적지로 평가, 해양치유산업 선도 지자체로 선정됐다. 현재 해양 자원을 활용한 연구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해양치유센터와 해양치유병원, 치유공원이 있는 해양치유단지 조성을 구상 중이다.

신 군수는 해양치유산업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유럽에서는 100년 전부터 해양치유산업을 실시해 시장 규모가 310조원에

달한다”며 “그만큼 영향력이 큰 산업으로 의료·관광·바이오 산업과 연계한다면 많은 일자리와 어마어마한 소득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역경제 발전의 근간이었던 전복 산업의 위기 타개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신 군수는 “그동안 활전복 위주로 유통돼 전복 소비의 한계가 있었다”며 “전복 껍데기를 벗겨 순살을 급냉시킨 ‘활급냉 순살전복’ 시스템을 구축하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전복밥과 전복만두, 장조림, 통조림 등 다양한 형태의 제품을 개발해 소비량을 늘려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수산물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전성인데 마침 완도 전복이 친환경 수산물이라는 국제 인증 ASC를 획득해 이를 통해 해외 시장도 적극 선점해나가고자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군민들을 위한 복지 정책에 대한 구상도 소상하게 밝혔다.

65세 이상 어르신 진료비 경감과 노인전문 요양 병원을 건립을 추진 중이라는 신 군수는 “섬이 많은 완도의 특성 상 도서 지역 어린이집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다문화 가정의 건강 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맞춤형 복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는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관광 활성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고

민선 7기 5대 군정 과제

- ▲미래성장 해양치유
- ▲지속가능 지역경제
- ▲사람우선 포용복지
- ▲생태중심 문화관광
- ▲가치보전 청정환경

말했다.

신 군수는 “완도처럼 해양과 섬, 갯벌, 숲을 아우르고 있는 지역은 전국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및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등재해 품격 높은 관광 시대를 열어가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순신과 진린 장군의 선양 사업, 원고 이파사 거리 조성, 가리포진 자원화 사업을 통해 문화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해상 케이블카와 해상유람선 투어를 마련해 청정 바다 완도의 매력을 두루두루 느낄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 군수는 “무엇보다도 다시 한 번 군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 군민들께 감사드리며 완도 발전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려 군민 행복시대를 열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다시마서 추출 알긴산 이용 음료 ‘알긴그레이트’ 출시



완도산 다시마에서 추출한 알긴산을 젤리 형태로 담은 음료 ‘알긴그레이트’(사진)이 출시됐다.

알긴그레이트는 유자와 석류 농축액이 들어간 두 가지 맛으로 다시마 추출액과 알긴산 젤리가 5% 함유됐다. 청정바다에서 자란 완도산 다시마를 활용해 지역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자 완도군에서 지원하고 전남생물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연구센터에서 6개월간의 연구 개발을 통해 만들었다. 완도군 관계자는 “알긴그레이트는 영양분이 풍부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건강 음료”라며 “유통망을 구축해 소득 증대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역사 속 완도’ 둘러보세요…해양생태전시관 개관

장보고 유적지 일원에 건립 해양실·유적 전시실 등 구성

완도 해양생태전시관이 최근 문을 열었다.

장보고 유적지 일원에 건립된 해양생태전시관은 연면적 1305㎡, 지상 2층 규모이며, 사업비는 50억원이 투입됐다.

‘역사 속 완도’를 둘러볼 수 있는 기획 전시실, ‘1200년 전의 기억’이란 테마로 장도를 조망하며 장보고의 개척 정신을 되새겨볼 수 있는 청해진 유적 전시실 등으로 구성됐다.

지구 표면적의 70%를 차지하는 바다 특징을 소개하는 해양실과 해양생태계 순환 및 완도 바다에 서식하는 생물의 종류와 가치를 알 수 있는 생태실도 있다.

해양산업과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영상으로 관람할 수 있는 미래실이 들어섰다.

‘완도의 바다 속으로’를 주제로 대형



장보고 유적지 일원에 건립된 해양생태전시관 전경. (완도군 제공)

디지털 수조(가로 10m, 높이 2.5m)와 퍼즐, 탁본, 낚시, 전복 양식 등 다채로운 체험도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 완도는 리아스식 해안과 갯벌, 해중림으로 형성돼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해양 생

물이 서식하고 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해양생태전시관을 통해 바다는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자산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완도군, (주)라온과 드론전문교육원 유치 협약



10일 완도군청에서 열린 완도군-(주)라온 드론전문교육원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 후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완도군 제공)

완도군이 (주)라온과 드론전문교육원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3일 완도군에 따르면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국토교통부 지정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지역민 드론 자격증 수료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드론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드론 생태계의 기반 조성을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문교육원 지정을 위한 공동노력, 완도군 드론산업 육성 및 분위기 조성, 공공분야 드론 활용도 제고를 위한

상호 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신우철 군수는 “드론전문교육원 유치가 사회 전반에 드론 저변확대를 가져올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행정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완도군은 드론교육과 연계해 적조예찰과 산불감시, 인명구조, 재난대비, 자원탐사, 문화재복원 등 공공분야에 드론 활용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130년 전통 독일 지멘스 보청기

새로운 소리를 듣다

선재 .한 달 착용후 불만족시 100% 환불

둘째 .보청기정부지원금 131만원 신청

셋째 .4개지점 어디서든 A/S 및 소리조절

넷째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50% 할인

상무지구: 376-1010 / 북구말바우: 268-9001 / 광산·수완: 954-1030 / 전대의대: 430-8801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뽁뽁~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산수오거리지점

062) 362-3336 돌고개지점